

행복한 책 읽기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 <문학동네>

단편소설 읽는 재미가 솔찬하다. 긴 얘기에 지친 자에게는 단편이 제격이다. 지루한 술자리에서 냉큼 읽어 마신 얼음생수처럼 반갑다.

첫 문장에 끌려 몇 줄만 읽으려 했다가 단갑을 아사삭 베어 문 듯 그 맛에 빠져, 끝까지 읽고 말았다면 즐거운 일이다.

김연수의 단편이 그랬다. 일찍이 '청춘의 문장들'(2007·마음산책)을 통해 성현들을 비롯한 남의 글에 대한 짝사랑을 고백했을 때부터 눈길이 갔다.

정갈한 문장을 구사할 줄 아는 그는, 역사적인 거대담론의 주제보다는 개인적 사소한 감정이나 주변의 사립잡은 상황임에도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솜씨를 지녔다.

같은 제목의 단편집에 수록된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읽다보면



가 하는 말의 뜻을 나는 모른다 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노력해야 한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전염된 불꽃들이 외롭게 타오르던 한 시기,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포용의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잘 알면서도 쉬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방식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방식을 생각하게 한다. 시 윤독 모임 '함께 시를 읽는 사람들'에서 '나'는 '세계의 끝 여자친구'라는 한 편의 시를 만나는데, 회선 씨라 불리길 원하는 할머니의 요절한 제자가 쓴 시다.

시인이 사랑했던 여자는 세상 끝까지 데려가고 싶었을 만큼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인은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다. 호수 너머 메타세쿼이아 한 그루가 '세계의 끝'임을 알고 죽은 시인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편지를 전해주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여자, 메타세쿼이아에 새겨진 고통의 감정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는 말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네

일이 아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담백하면서 쓸쓸한 사랑 이야기다. 쉬운 만남과 가벼운 이별의 시대에, 사랑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게 한다.

소설 속에서 죽은 시인이 남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스물다섯 나이의 '나'와 죽은 시인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교차점에 엮거리면서, 가슴 안에 묻어 두었던 참된 사랑의 의미를 끄집어내게 한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묻는다.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으로 사랑을 지킬 것인가.

사랑의 방정식에 백점 만점의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사랑은 문득 시작되어 순식간에 세계를 점령한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는 백지상태로 무화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광주 폴리 II 디자인·설치공간 확장

'인권과 공공 공간' 새로운 해석... 광주공원 등 6곳 설치

시민단체, 작품 운영 참여... 시민참여형 조형공간으로

광주역 앞 교통섬은 혁명의 교차로

'광주 폴리(Folly) II'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광주정신을 품는다. 기존 11개의 폴리가 가지고 있던 공간적 제약에서 유연해지면서 인권과 공공 공간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들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도시를 수놓는 8개의 폴리는 각 작품마다 시민단체 등이 운영에 참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예술 조형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일 '광주 폴리 II 최종 디자인 컨셉'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완공되는 8개 폴리에 대한 최종 디자인과 설치 공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폴리 II가 들어서는 공공 공간은 광주역 교통섬, 광주천변, 광주공원,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회관 등 6곳으로 80년 5월 광주역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 건축의 거장 렘 콜하스와 잉고 니어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뒷골목에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컨셉으로 '투표(Vote)'라는 폴리를 만든다. 두 작가는 건축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면서 작품이 던지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예, 아니요, 중립' 중 한 가지를 투표하게 된다. 이 폴리는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 파트너로 나선다.

광주천 양유교에는 천변과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국적 정서에 현대적인 느낌을 갖춘 인문학 공간이 들어선다. 건축과 데이비드 아자예와 소설가 타이에 셀라시가 만드는 '광주천 독서실'로 광주YMCA와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끊임 없이 광주를 가로지르는 폴리도 있다.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가 만드는 '탐구자의 전철'은 전체 지하철 가운데 4개 차량의 1량을 비주얼아트로 변화시켜 특정테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운영파트너는 광주도시철도공사다.

에알 와이즈만은 광주를 비롯해 뒤

■광주 폴리 II 특별 작품 설치 장소 및 컨셉

작가명	작품명	장소	컨셉
서도호	틈새호텔	이동식(도심일월)	역사와 공간의 틈새를 이동하는 미니호텔
렘 콜하스 & 잉고 니어만	투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도로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여론조사
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	광주천 독서실	광주천 양유교 인근 천변	천변과 천(정경다리),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문학 공간
수퍼플렉스	유네스코 화장실	광주공원 입구	유네스코 상임위원 화장실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탐구자의 전철	광주지하철	지하철 객차를 이용한 비주얼아트
에알 와이즈만	혁명의 교차로	광주역 앞 교통섬	인권을 애가하는 미디어 커뮤니티 룸
고석홍 & 김미희(공모당선작)	기억의 상자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	광주와 광주시민의 기억을 담은 타임캡슐
아이 웨이웨이	포장마차	이동식(도심일월)	이동식 큐브형 푸드카트

니지, 카이로, 테헤란 등 역사적 혁명이 로터리, 즉 교통섬에서 일어났다는 데 주목했다. 광주인권평화재단과 함께 광주역 앞 녹지공간에 평등을 상징하는 원탁 구조물을 세우고, 각 도로 위에 테헤란, 라말라, 광주, 카이로, 마나마에서 일어난 각 혁명을 표시한다.

이동식 폴리는 서도호씨의 '틈새호텔'과 아이 웨이웨이의 '포장마차'다. 틈새호텔은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 선보였던 작품을 새롭게 개조한다. 아이 웨이웨이는 국가 예산으로 포장마차라는 불법적인 작품을 제작해 도시를 유랑한다.

수퍼플렉스는 광주공원 입구에 유네스코 본부 화장실을 축소해 그대로 옮기고, 고석홍·김미희씨는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미래지향적인 기억의 상자를 설치한다.

폴리 II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특징이 있다. 폴리 I의 일부 작품이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 학생,



광주 폴리 II 프로젝트 천의영 큐레이터가 2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광주 폴리 II의 기본 컨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 설계자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작품을 완성해 간다는 의미도 있다. 또 19개의 폴리가 모두 완성되면 매달 폴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광주 문화재단에 맡겼던 폴리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시 가져와 시민단체와 함께 폴리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술학도들, 아트 캠퍼스 나들이

롯데갤러리 '나agai 가즈마사'전 관람... 10일까지 전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꼭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왔어요."

2일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나agai 가즈마사(NAGAI KAZU-MASA)-생명의 변주곡'전에 전남대에서 시각디자인과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20여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사진가 김영태(43)씨에게 '포토그래피'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개막날 전시를 보고 간 김씨는 작품들을 보고 학생들을 먼저 떠올렸다. 그래서 이날 강의실을 캠퍼스 밖으로 옮겨, 롯데갤러리를 찾았다.

학생들은 갤러리를 둘러보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작품에 흠뻑 빠져들었다.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과 구체적인 형상들을 다양한 패턴과 문양으로 선보이는 작품성은 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김씨는 작품을 머리에 새기기 위해 선과 색 하나하나를 살피는데 여념 없는 학생들에게 "생명에 대한 통찰력을 시각화시키는 능력이 백미"라고 조언했다.

전시를 둘러본 김다은(여·23·전남대 미대 한국화과 3년)씨는 "굉장히 흥미롭다. 모티브는 같은데 다양한 표현과 전통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

게도 인기가 높다. 나agai 가즈마사의 작품이 시각적으로 관람객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명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



2일 전남대 시각디자인, 동양화 전공 학생들이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나agai 가즈마사의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녀의 손을 잡고 갤러리를 찾는 사람도 많다. 박미형(여·32)씨는 "문화센터에 들렀다가 전시를 보고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았다"며 "작품들이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광주일보사, 롯데갤러리가 함께 진행하는 '일본 문화 페스티벌'의 첫 행사다. 전시는 10일까지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형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